

BE PART OF OXFAM'S

SECOND HAND SEPTEMBER



PLEDGE TO
SAY NO TO
NEW CLOTHES
FOR 30 DAYS

옥스팜과 함께
새것 없는 9월을
만들어요!

campaign.oxfam.or.kr/secondhandseptember

'옷장'을

새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옷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티셔츠 한 장과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 재배부터 염색 과정까지 약 2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옷장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지구
반대편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가뭄, 폭우,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은 모두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이상기후 속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빈곤국 취약계층이 겪고 있습니다.

20,000ℓ

10%

1,000,000,000명

한 벌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00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20,000L의 물은 한 사람이 13년 넘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엄청난 물이 소비되는 동안, 전 세계 인구의 40%는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10%는
의류 산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0%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막대한 양의 물이
사용되며, 의류를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10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합니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0%를
차지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막대한 양의 물이
사용되며, 의류를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새 옷 안 사기가 주는 사회적 티핑 포인트

18살 성인이 된 튜베리는 왜 옷을 사지 않을까?



이근영 기자

한겨레 과학전문 선임기자

한겨레 창간 때 입사하여 2000년부터 과학과 기상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자상(2018),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6)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책을 통해 환경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저서 <생활속과학 과학속생활>, <미래와 과학>,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등

지난 8월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과학적 근거)에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화한 것은 자명하다(unequivocal)”고 돼 있다. 8년 전 2013년 제5차 평가보고서의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확실하다(clear)”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다. 자명하다(unequivocal)와 확실하다(clear)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아도 두 단어의 무게를 알 수는 없다.

IPCC는 기존에 동료평가를 통해 검증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 대부분 과학저널을 통해 공개된 논문들을 평가해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조직이다. **6차 보고서에는 “자연이 아닌 인간 유래 기후변화가 폭염·호우·가뭄·열대저기압 등 세계의 많은 기상·기후 극한 현상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는 평가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확실하다’는 단어가 붙어 있다. ‘사실상 확실하다’의 무게는 또 얼마일까? 정답은 보고서 각주에 들어 있다.

IPCC는 평가 결과 99~100%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상 확실’(virtually certain), 95~100%면 ‘대단히 가능성 높음’(extremely likely), 90~100%면 ‘매우 가능성 높음’(very likely) 식으로 단서를 단다. 제5차 보고서에는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돼 있다. 5차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간 유래의 기후변화가 95~100% 정도 확실하다(대단히 가능성 높음)고 평가했던 데 비해 6차 보고서에서는 그 확실성이 99~100%(사실상 확실)로 더 높아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여전히 확률 숫자라서 직관적인 이해에는 부족하다. 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 지구 평균온도가 1.09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5차 보고서의 0.78도와 차이가 0.31도다. 약 10년 사이 0.3도 이상 상승한 것이다. 6차 보고서는 또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21~2040년에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도 썼다.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그 시점을 2030~2052년으로 전망했다. 10년 가량 앞당겨졌다.

99~100% 확률, 0.31도 상승, 1.5도 초과 모두 숫자로 표시돼 있지만 우리의 감각은 수치화된 것이 아니어서, 곧 우리는 로봇이 아니어서 단박에 깨닫기 어렵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보고한 연어의 비극은 간접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한 미국 환경보호단체는 최근 태평양에서 컬럼비아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연어들이 온몸에 상처 투성인 채로 힘겹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수중촬영해 공개했다. 컬럼비아강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원해 미국 워싱턴주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연어들은 불에 덴 듯 몸이 헐어 흉측한 모양을 한 채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가는 커녕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불타는 빌딩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어들이 원래 다니던 길을 바꿔 다른 지류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표현했다.

연구팀의 보고를 보면, 촬영한 날 강의 수온은 21도가 넘었다. 당시는 밴쿠버에 역대급 폭염이 닥친 시기다. 연어가 이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치명적이라 한다. 미국 수질오염방지법은 컬럼비아강의 수온이 20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다. 20도와 21도, 단 1도의 차이로 연어들은 삶의 무대를 잃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도의 체온 변화를 겪고 있기에 1도, 1.5도 온도 상승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필자 역시 기후변화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 20여년 과학담당 기자 생활 중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처음 쓴 건 2005년, 제주 연산호 살리기 기사를 쓰면서였다. 세계 산호초의 70%가 파괴됐다고 보고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회의를 언급하면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썼지만 환경보호 캠페인 용어 정도로 이해하는 ‘일천한 인식’에 그쳤다. 기후변화를 오롯이 ‘만난’ 건 우연이었다. 2007년 해외취재를 간 오스트레일리아 호텔 방에서 무심코 켜 텔레비전 화면에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강연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기후변화와 조우한 것은 십년도 더 흐른 뒤였다.

2018년부터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기획란을 만들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됐다. 우연의 일치로 그 즈음 국내 언론들도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 필자가 한 언론의 지면에 실린 내용을 PDF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두 단어를 중앙일간지 12개, 경제지 11개, 전문지 2개에서 검색해보니,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COP15)가 열린 2009년 연간 9천건에 이르렀을 뿐 파리기후협정이 맺어진 2015년이나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1.5도 특별보고서 발표)가 열린 2018년에도 3000~600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나 5천여건, 2020년에는 9천여건으로 급증하고 올해는 4월까지 5천건에 이르러, 연간 1만5천~2만건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된다.

아마도 2018년 세계적 폭염과 우리나라의 역대급 폭염, 2018년 8월 금요일 학교 파업을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 현상이 170여개국으로 번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도 기사 건수 급증에 미미한 기여는 한 것 같다. 하지만 기사를 쓸수록 어려운 것은 기후위기를 직관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지녀야 할 소양 중 하나가 객관화하지만, 이성만으로 기사를 쓴다는 건, 세상이 과연 변할까라는 자괴감을 종종 갖게 만든다. 자동차를 되도록 운행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런 자괴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는다.

최근 튜베리 덕에 그나마 자괴감을 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얻게 됐다. 튜베리가 올해 1월 만 18살 성인이 돼 처음 펴에 갔다는 트윗을 올리자 언론들이 주목했다.

하지만 필자는 튜베리가 ‘더이상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밝힌 데 더 눈길이 갔다. 18살 성인이 된 튜베리가 왜 옷을 사지 않을까. 전에 의류산업의 패스트패션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 담박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영국 연구팀의 논문은 의류산업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세계 1인당 섬유 생산량이 1975년에서 2018년 사이 5.9kg에서 13kg으로 증데다 2020년 4월 기준 의류 브랜드는 2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패스트패션이 유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의류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연간 1조5000억ℓ에 이르고, 해양의 1차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35% 이상이

의류산업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법정 스님의 일화는 새 옷 안 사기의 ‘온당함’을 받쳐준다. 어떤 스님이 글을 즐겨 쓰는 법정 스님한테 끝이 날까로운 만년필을 드리자, 맘에 든 스님이 유럽 여행길에 똑같은 만년필을 하나 더 샀다. 그러자 만년필이 하나였을 때 느꼈던 살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다. 스님은 얼른 만년필 하나를 다른 스님한테 건넸고, 만년필의 소중함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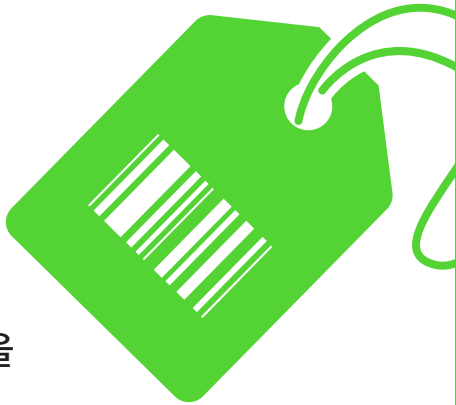
한 사람의 작은 몸짓이 과연 사회 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혁명 경험이 주는 ‘사회적 티핑 포인트’ 가능성의 희망이 좀더 자명해지길 고대해본다.

옷에 딸린 추억이 몇 된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아이보리색 점퍼가 그렇다. 유난스레 춥거나 더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외출하실 때면 그 점퍼로 의관을 가지런히 하셨다. 소매 끝이 나탈거릴 때까지 입으셨는데 그 시절엔 너나없이 그랬다. 설빔, 추석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옷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게다가 옷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얼마나 각별했는지. 식구 중 누군가의 옷이 바닥에 있는 걸 모르고 밟았다가 어머니에게 혼쫓아 났던 기억도 떠오른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주름 스커트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덕분에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가을이면 한두 번 꺼내 입곤 한다. 입을 때마다 아직 젊은 엄마를 떠올리게 되다 보니 주름 스커트는 내게 타임머신 같다. 그런데 이 옷을 내 딸이 물려 입을 것 같진 않다. 세상엔 옷이 차고 넘치도록 많으니까. 이제 더는 옷이 귀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옷장이 터져나갈 듯 옷은 빼곡한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되풀이 하는 이 기이함의 끝에 패스트 패션이 있다.

심 없는 유행을 만들어내며 이제 옷은 일회용품으로 전락해버렸다. 비싼 값을 주고 산 옷이라면 일회용품 수가 없다. 옷값이 싸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 있던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로 천 명이 훌쩍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턱없이 저렴한 임금을 받고 일하던 여성들이었다. 피로 짠 옷을 입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외침도 없진 않았지만 여전히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대략 3,000만 명인데 매주 수입되는 중고의류는 대략 1,500만 개쯤 된다. 잘 사는 나라에서 떠넘겨진 이 많은 옷이 이곳에서 다 소화될 리 만무하다. 저개발국가는 폐기물처리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팔리지 않은 의류 쓰레기가 산을 이루며 강을 잡아먹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우리나라 의류수거함을 거쳐 수출하는 중고의류 규모는 세계 5위다. 'made in Bangladesh', 'made in India', 'made in Vietnam', 싼 옷을 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옷 라벨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스며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ISSUE FOCUS:2

라벨이 말하지 않는 것들

옷에 붙은 라벨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최원형 작가

환경생태 작가

KBS, EBS 방송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으로 일하며 책을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저서 <착한 소비는 없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환경과 생태 품 아는 10대> 등

전 세계 폐수의 20%가 의류산업에서 나온다. 의류산업은 염색이라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이 상당하다. 환경규제가 허술한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공정에 들어가는 오염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개발국가로 의류기업이 몰리는 이유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있는 노이알 강은 맑던 물이 녹색에 허연 거품이 부글거리는 강으로 변했다. 그 물로 농사를 짓던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염색공정에는 오염 뿐 아니라 물 소비도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의류 염색에 올림픽 수영장 2백만 개를 채울 정도의 물이 쓰인다.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적어도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한 해 청바지만 40억 벌이 생산되니 의류 공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저렴한 의류가 가져오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이상 돌 곳이 없어진 옷들은 의류 수거함을 거쳐 저개발국가로 이동한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의 수도 아크라 바닷가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산 적도 입은 적도 없는 의류 쓰레기들로 일상이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아크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아프리카 최대 중고의류시장인 칸타만토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중고의류를 실은 컨테이너가 도착한다. 가나 인구가

옷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유전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직계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옷을 처음 입기 시작한 때를 여러 과학적인 근거로 추정해봤더니 대략 17만 년 전이었다고 한다.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삶을 시작한 초기 인류가 옷을 필요로 했던 건 추운 지방인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였다. 다른 동물과 달리 물이 털로 덮이지 않은 우리 인류는 추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에 무언가를 두르기 시작했다.

의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가 무려 10%에 이른다. 해운과 항공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배에 가까운 양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생산단가를 낮춰서 싼 옷을 생산하기 위해 팔리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과잉으로 옷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 프랑스처럼 일단 생산해 놓고 재고의류를 소각처리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옷에 생명을 불어넣을 중고의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직 빙기였던 그 시절 기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걸치기 시작했던 옷이 이젠 기후를 어그러뜨리며 지구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옷에 붙은 라벨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패스트 패션은 현대사회 쓰레기를 양산하는 소비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패스트 패션 산업에서는 연간 의류 신제품이 출시되는 횟수가 50번이라고 한다. 1~2주 단위로 신제품이 출시된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등장하기 전에 연간 2회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라졌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유행의 속도가 빨라져서 소비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패스트 패션이 득세한 결과 연간 1천억 벌의 옷이 소비되고, 3백억 벌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2015년 기준 섬유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약 7억 톤으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맞먹는다.

5천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매년 배출되는데 이중 단 1%만이 섬유로 다시 재활용된다.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매년 50만 톤의 섬유조각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마치 일회용품처럼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의류 쓰레기로 인해 지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우리는 의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입지 않는 옷은 옷장에 방치되거나,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면 어딘가에서 재사용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재사용이 될 테니 쓰레기를 버렸다는 죄책감은 크게 들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옷은 실상 대부분 저개발국가로 수출되고, 해당 국가에서 절반만 재사용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사실상 투기된다. 재사용되는 옷들도 얼마 후 쓰레기로 해당 국가에서 버려진다. 결국, 쓰레기로 버려진다.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의류쓰레기를 재사용 명목으로 쓰레기 처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저개발국가로 떠넘기고 있다. 재사용 혹은 재활용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버린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있는 재활용(responsible recycling)'이 중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쓰레기로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 기후 위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생명체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마케팅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친환경 재질이라는 말에 혹해서도 안 된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재질이란 없다. 유기농 목화로 만든 면섬유라고 해서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겠는가?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착한 소비란 없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는 최소화해야 한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의 유행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

우리 소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에게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물건의 가치를 지켜주고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대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인간의 인해 고통받는 현대의 생물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툰베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천을 이끌어 가는 건강한 희망도 필요하다. 당장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분노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천이 오래 지속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받쳐줘야 한다.



홍수열 박사

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한 후 11년 동안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소각장 매립지 · 감영성 폐기물 · 다이옥신 · 편의점쓰레기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재활용 캠페인 등 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쓰레기를 사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소비자의 의무

매년 5천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배출되고, 50만 톤의 섬유 조각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1948. 채리티숍 1호점 오픈



1971. 세컨핸드 패션쇼 개최



1974. 웨이스트세이버 설립



1994.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참가



현재. 12,000톤의 의류 및 잡화 재활용

HISTORY:

옥스팜 세컨핸드 셉템버

옥스팜은 1974년 웨이스트세이버(WasteSaver) 시설을 구축한 이후 입지 않는 옷과 사용하지 않는 패션 아이템 등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트세이버를 통해 분류된 물건들은 영국 전역 500여 개의 채리티숍으로 보내져 새로운 주인을 만납니다. 매년 옥스팜 채리티숍을 통해 12,000톤의 옷이 재활용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 세계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매년 9월 새것 없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수많은 의류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제훈도 함께하는 #새것없는 9월



ACTION:

5 Top Tips for Buying Secondhand CLOTHES

패션블로거 한나 엘리만의 세컨핸드 득템 TIP 5

옷을 보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재미가 있는 세컨핸드의 또 다른 매력은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매주 3,800만 벌의 새로운 옷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1,100벌의 옷이 쓰레기로 버려지죠. 세컨핸드를 사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시간과 자원, 노동력이 필요한 의류 생산의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세컨핸드를 잘 사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비결을 통해 여러분도 세컨핸드샵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Tip 1: 자주 방문하세요

세컨핸드샵의 생리상 나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옷이 언제 모습을 드러낼 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자주 방문할수록 더 예쁜 물건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자주 방문한 덕분에 새해를 기념할 반짝이 상의와 언제나 손이 가는 블랙 미니 드레스, 빛나는 드레스와 점퍼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간'이라는 영국 속담은 중고마켓을 위해 만들어진 말인 것 같네요!

Tip 2: 액세서리를 잊지 마세요

이건 저의 꿀 팁 중 하나인데요. 세컨핸드샵을 가면 가장 먼저 드레스 코너의 옷을 살살이 살펴봅니다. 그렇게 시작해 모든 옷을 한 번씩 다 보고 나면 마지막에는 액세서리 코너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양한 액세서리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안 하는 걸 보며 세컨핸드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Tip 3: 조금 수선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컨핸드샵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딱 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과 비슷한 아이템을 발견했다면 조금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기장이 길면 조금 줄이고 허리가 길면 벨트로 올려 입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데님 드레스는 원래 너무 길어 옷자락이 끌릴 정도였습니다. 단을 수선하고 나니 너무 잘 맞아 지금은 매일매일 손이 가는 드레스가 되었습니다.

Tip 4: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옥스팜 채리티샵에서 무언가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다음에 가서 누군가 샀다는 그 물건을 눈여겨봅니다. 세컨핸드에 다음 기회란 없으니까요. 특정한 아이템만을 찾는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 걸려 있어 못 보고 지나친 나에게 딱 맞는 아이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평소 도전하지 않는 옷이라도 도전하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ip 5: 쇼핑은 친구와 함께

4번째 팁과 연관된 팁인데요, 저는 친구와 함께 쇼핑하면서 혼자였다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을 아이템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옷을 저에게 입어 보라며 건네 주기도 하죠. 혼자라면 보지도 않았을 옷을 친구 덕분에 입어볼 수 있지요. 그렇게 가져온 옷이 더 예쁠 때가 많습니다.



2023 세컨패션 능력고사 정답 및 해설

1번 정답 ㉠ 2700리터

[풀이] 새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2700리터이며, 한 사람이 900일간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2번 정답 ㉠ 35%

[풀이] 아크릴섬유,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옷감의 주원료가 플라스틱이다. 영국의회환경감사위원회(EAC)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최대 35%가 의류에서 떨어져 나온 플라스틱이다.

3번 정답 ㉠ 333억벌

[풀이] 1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은 1천억 벌이며, 그중 버려지는 옷은 330억 벌에 달한다.

4번 정답 ㉠ 빈티지 숍에서만 옷을 구입하는 펑수

[풀이] 옥스팜은 의류 산업으로 인한 오염과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입지 않는 옷을 수거하고 분류하여 채리티숍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것이다.

5번 정답 ㉠ ㉡, ㉢, ㉤

[풀이] 천연섬유의 종류로는 식물섬유(면, 마), 동물섬유(견/실크, 양모, 짐승 털, 다운), 광물섬유(석면) 등이 있다. 인조섬유의 종류로는 재생섬유(레이온, 큐프라, 리오셀), 반합성섬유(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무기섬유(탄소섬유, 금속섬유, 유리섬유), 합성섬유(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출처 고검고켓

6번 정답 ㉠ 13년

[풀이] 청바지 한 벌과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면 재배부터 염색 과정까지 약2만 리터이다. 한 사람이 1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7번 정답 ㉠ 12,000톤

[풀이] 옥스팜은 버려지는 옷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1974년 재활용 시설 '웨이스트세이버(Wastesaver)'를 구축했다. 현재는 매년 12,000톤의 옷이 웨이스트세이버에서 분류되어 500개 이상의 채리티숍에서 판매되고 있다.

8번 정답 ㉠ Second Hand September

[풀이] 옥스팜은 매년 9월 '세컨핸드 셉템버(Second Hand September)' 캠페인을 통해 과도한 의류 생산으로 인한 문제를 알리고, 한 달간 새것을 사지 않고 자원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9번 정답 ㉠ ㉡-㉢-㉤-㉥-㉦

[풀이]

- ㉠ 1948년 채리티숍 1호점 오픈
- ㉡ 1971년 세컨핸드 패션쇼 개최
- ㉢ 1974년 웨이스트세이버 설립
- ㉤ 1994년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참가
- ㉦ 2023년 배우 이제훈의 실크스크린 티셔츠 제작

10번 정답 옥스팜(OXFAM)

[풀이] 옥스팜은 매년 9월, 영국과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새것 없는 한 달을 위해 '세컨핸드 셉템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옥스팜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가 기근 구제를 위해 시작 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구호개발기구로 2014년 한 국사무소를 설립했다. 옥스팜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 물, 식량, 의료부터 교육, 인권, 기후위기 대응까지,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9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학년도 9월 기후위기 대응 영역 '세컨패션 능력고사' 학년 발표

학년	맞은 개수	비고
1학년	0개	1학년은 처음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아가면 되니까 걱정은 금물! 능력고사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석 졸업생
2학년	1~3개	'세컨패션'이 무엇인지 이제 막 알아가는 중! 산뜻한 출발이야! 졸업까지 2년 더 남아있어!
3학년	4~6개	'세컨패션'에 관심은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 하지만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알지?
4학년	7~9개	세컨패션? 내가 모를 순 없지, 졸업이 곧 코앞이라고! 대선배는 달라도 달라. 옥스팜과도 공감이 아주 찰떡이겠군!
졸업생	10개	이번 9월의 주인공은 너야 너! '세컨패션' 짬이야~ 환경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9월의 졸업생! 졸업을 축하해! 앞으로도 옥스팜과 꽃 길만 건자~!



#채점 결과 인증 이벤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옥스팜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oxfamkorea에서 확인해 주세요!



옥스팜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어깨높이만큼 물이 차오른 홍수가 왔을 때
식량을 모아 대비해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옥스팜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난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어요.

- 사즈나(Sajna), 파키스탄
- 긴급물류센터 상시 운영 및 위생용품과 생필품 배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

QR

옥스팜과 함께 기후취약계층을 지켜주세요

재난위험 경감 지원

- 대피소, 식수시설, 화장실 등 재난대비시설 설치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대피훈련 및 안전 교육 실시

기후위기 대응 교육

- 기후변화로 황폐화된 논과 밭에 관개시설 구축
- 기후적응력 좋은 품종 제공 및 농업기술 교육

기후재난 긴급구호





- 긴급물류센터 상시 운영 및 위생용품과 생필품 배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우리의 행동이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ONDHANDSEPTEMBER

옥스팜 코리아

-  [Oxfam.or.kr](https://oxfam.or.kr)
-  [@OxfamKorea](https://www.instagram.com/OxfamKorea)
-  [@OxfamKorea](https://www.youtube.com/OxfamKorea)
-  옥스팜코리아



OXFAM
옥스팜